



# 비료와 식량

2024년  
1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 보도 동향
4. 농경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6. 무기질비료 상식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 소개



## 한국 비료 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1 회원사 동정

### □ 남해화학(주)

#### ○ 중국 요소 수출 통제에도...“내년 비료 공급 문제 없어”

- 비료업체, 사용물량 기 확보, 동남아 국가로 공급망 다변화

중국의 자국산 요소 수출 통제에도 내년도 비료 공급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7일 전남 여수에 위치한 남해화학 비료 생산공장을 방문해 비료 원료 수급 및 생산 현황 점검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초 중국이 비료 원료인 요소·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데 따른 업체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하형수 남해화학 대표는 “올 11월말에 내년 사용물량을 미리 확보해 비료 공급에 는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도 수입국을 중국에서 카타르·사우디·말레이시아 등 중동 및 동남아 국가로 더욱 다변화해 비료 공급망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비료 원료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매주 원료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도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반영된 만큼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비료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농민신문(2023.12.27.)기사내용 인용

### □ (주)조비

#### ○ 원예용 新완효성비료 ‘ONECOTE 6M’ 출시



조비가 2024년 새해 첫날, 신제품 프리미엄 울코팅 완효성비료 ‘ONECOTE 6M(원코트180일)’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식물 유래 물질의 함량을 높여 완전 생분해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 피복 물질로 코팅한 것이 특징이다.

원코트는 1987년 완효성비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조비의 축적된 완효성 제조기술을 적용, 비료성분이 작물의 생육에 맞게 서서히 용출되도록 설계됐다. 1회 시비로 비효가 5~6개월간 지속 되기 때문에 웃거름 생략이 가능해 시비 노동력이 절감된다.

업체 측은 또 원코트엔 작물의 생육 및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비료와 기능성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돼 있다고 강조한다.

원코트 한 알에는 필수 3요소(질소·인산·칼리)는 물론 다량요소인 고토·황, 미량요소인 붕소·아연·구리·망간·몰리브덴 등 기능성 성분이 모두 들어있다. 작물의 잎과 줄기의 생육 및 각종 생리장애 해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다. 특히 황이 고농도로 함유돼 있어 작물의 맛·향·색 등에 도움을 준다. 또 다른 주요성분 중 하나인 아미톤은 생리장애 예방 및 면역력 향상 등 종합적인 대사 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 추출 기반 대사활성 물질이다.

조비는 “원코트는 고추·오이·토마토 등 생육기간이 길고 시비 횟수가 많은 국내 원예작물에 맞춰 개발됐다”며 “전층시비, 표층시비, 파구처리 등 재배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어 농작업의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고 강조했다.

※ 농민신문(2023.12.21.)기사내용 인용

### □ (주)팜한농

#### ○ 2023년 우수특허대상 수상



팜한농(대표 김무용)이 국내 최초로 햇빛에 분해되는 친환경 완효비료 코팅 기술을 개발해 ‘우수특허대상’을 수상했다. 비료 코팅 재료인 합성수지에 광촉매를 융합시켜 광분해되도록 함으로써, 완효성 비료 사용 후 남는 폐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코팅 완효성비료는 비료 입자를 합성수지로 코팅해 작물 생육에 맞춰 영양분이 천천히 녹아 나오도록 만든 비료다.

한 번만 살포하면 수확할 때까지 더 이상 비료를 주지 않아도 돼 농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팜한농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LG화학과 함께 2016년부터 ‘완효성비료 광분해 기술’을 개발해 왔다. 광촉매 융합 기술 및 피복 분해 기술의 집약체인 ‘에코몰라’ 적용 비료는 작물 수확 후 햇빛에 노출되면 코팅 재료가 안정적으로 자연분해된다.

팜한농은 ‘광분해 완효성비료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술제품 인증’, ‘신기술(NET)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 한국일보(2023.12.27.)기사내용 인용

## □ (주)풍농

### ○ 엔피코 완효성비료!!!

- "룡런모든작물", "유황·칼슘(석회)·규산 다량함유 모든작물용 완효성비료"



엔피코 룡런모든작물(12-5-5,고토2,붕소0.2,규산6,석회15,유황5)은 양분공급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측조시비 효율이 향상되고, 관행 비료보다 양분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추비(웃거름)생략 가능한 시비 절감형 완효성비료입니다.

룡런모든작물 비료는 완효성+속효성의 필수양분 공급, 고토, 붕소 등 미량요소, 칼슘(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작물생육향상, 증수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기능성유황 함유로 원예, 과수 작물 맛, 때깔, 당도 및 품질향상,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적합합니다. 공인기관 시험결과 고추 6% 증수, 배추 13% 증수, 벼 3% 증수효과로 비료효과가 입증되어 농업인 등 사용농가 평가에 만족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원예·과수 160~250kg/10a, 벼 60~90kg/10a 보통논 전층시비 또는 측조시비, 산성토양 등 불리한 토양조건에서 처리시 사용효율이 뛰어납니다.

※ 풍농 자료 인용

## 2 협회 주요 활동

- 원료 수급 관련 실무 회의 개최(1.4, 협회)
- 비료 원료구입자금 사업 업무 협의(1.10, 농식품부 주최, 세종청사)
- 신입 부서장 인사 및 현안 업무 협의(1.11, 농협중앙회)
- 원료 수급 관련 실무 회의 참석(1.16, 농식품부 주최, 세종청사)
-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1.19, 농식품부 주최, 세종 컨퍼런스)
- 농업전망 2024 참석(1.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서울 드래곤시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보도 동향

### 【 국 내 】

#### □ (농식품부) '23년 비료 구입비 2,700억 원, 사료자금 1조 원으로 농가 경영위험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 하였다.

\* 농가구입가격지수 ('20 = 100) : [비료비] ('21) 107.5 → ('22) 249.6 → ('23.3Q) 189.2  
 [사료비] ('21) 111.2 → ('22) 135.3 → ('23.3Q) 138.4  
 [광열비] ('21) 127.1 → ('22) 201.7 → ('23.3Q) 174.4

\* 재해피해('23) : (냉해) 과수 37.8천 ha, 밭작물·임산물 등 6.9천 ha  
 (호우태풍) 농작물 침수 71천 ha, 가축 폐사 969천 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 ha 등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

\* (원료자금) 비료 6,000억 원, 사료 627억 원 / (할당관세) 비료 2종, 사료 18종

그리고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원에 농가를 대상으로 '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간도 '26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농가의 재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올해 6월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 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되었다.

\* (기존) 모든 분야의 시설 피해만 반영, 농작물·동산·공장 피해는 제외 → (개선) 제외 규정 삭제

※ 농식품부(2023.12.29.) 보도자료

### □ 무기질비료업체 원자재 가격 상승 불안...“농기자재 패키지 지원”

#### ○ 올 사업 전망 “지난해와 비슷”, 수출은 ‘다소 성장’ 기대감, 가격 경쟁력 확보 최대 고민

지난해 경영 실적을 묻는 질문에 무기질비료업체 7곳의 답변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2022년과 비교해 ‘매우 하락했다’는 응답 비중이 71.4%(5명)에 달했고 나머지 2명도 ‘다소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 공급의 불안함과 가격 상승, 이에 따른 농가 구매 악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

힘들었던 2023년을 보낸 무기질비료업체들은 2024년 농업기자재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응답자의 71.4%(5명)이 ‘다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28.6%(2명)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비료사업 전망에 대해선 ‘전년과 비슷’ 할 것이라는 답변이 71.4%(5명)로 가장 많았고 28.6%(2명)은 ‘다소 하락’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2024년 비료업체들의 경영에 영향을 줄 요인을 묻는 질문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은 사람이 42.9%(3명)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정부 정책’(2명·28.6%)과 ‘환율 변동’(1명·14.3%), ‘기타’(1명·14.3%)를 선택했다.

#### ▶ 2024년 시장 전망과 정부 정책 만족도

국내 사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대책을 묻는 질문에 비료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4명·57.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비료업체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올해 중점을 둘 부분으로 ‘조직 역량 강화’(4명·57.1%)와 ‘혁신·연구 개발’(3명·42.9%)을 꼽았다.

비료업체들은 올해 비료 수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50%(4명)은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42.9%(3명)는 ‘다소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 업체들은 ‘신규 수출 시장 개척’(4명·57.1%)이 가장 많았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4%(5명)이 ‘제품 구매 보조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비료업체들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의 71.5%가 ‘매우 불만족’(3명·42.9%)과 ‘다소 불만족’(2명·28.6%)을 선택했다. ‘다소 만족’과 ‘보통’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14.3%에 그쳤다. 무기질비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화되길 바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료업체들은 ‘정책과 농기자재 지원 패키지 정책 추진’(4명·57.1%)을 가장 많이 요구했고 ‘제품 구매 보조 지원’(2명·28.6%)과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확대’(1명·14.3%)가 뒤를 이었다.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57.1%(4명)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은 28.6%(2명)로 확인됐다. 이미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은 14.3%(1명)에 그쳤다. 비료업체들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지원 정책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R&D 지원’(4명·57.1%)을 꼽았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12.29.)기사내용 인용

## □ 진입장벽 낮췄지만...우량비료 지정, 왜 외면 만나

### ○ 원료가격 상승에 경영 부담, 신제품 개발 쉽지 않고

지정돼도 큰 메리트 없어, 개발·판로 등 지원 목소리

정부가 우량비료 인정기준을 완화했지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우량비료로 출시된 제품은 전혀 없다. 불안정한 원료 수급과 원료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비료업체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것은 물론 우량비료로 지정돼도 커다란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완화된 우량비료 인정기준

우량비료는 국내에서 새로 개발하거나 품질을 개선한 비료 중 농업환경과 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농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인정되면 지정한다. 비료업계의 우량비료 연구개발과 신제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2004년 도입했지만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될 만큼 우량비료 지정 실적은 '0'이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규정 등이 엄격해 비료업체들이 지원하길 꺼려한 것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5월 2일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우선 지정요건을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로 비료 생산업 등록종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으로 개선했다. 여기에 '연간 1000ha 이상 규모의 생산·공급이 가능할 것', '새로 개발돼 유통 공급을 시작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등의 문구도 삭제했다. 지정기준도 대조구인 기존비료보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면 인정되고 대조구가 우량비료이면 비등효과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정 실적은 '0'이다. 다만, 성과가 있다면 고시 개정 이후에 팜한농이 우량비료 지정 신청에 나서 심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팜한농 관계자는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1~2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신제품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운 경영 여건

우량비료 인정기준을 다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량비료 지정이 전무한 것은 물론 신청실적도 저조하다. 이에 비료업체들은 불안정한 원자재 수급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신제품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우량비료 개발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비료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A업체는 약 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B업체도 영업손실이 43억원에 달했다. 이 업체의 당기순손실은 63억원이다.

C업체의 경우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실적이 2022년 같은 기간 보다 33.7%(내수 기준) 급감했다. 2021년 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던 D업체는 2022년 4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경영 어려움에 직면했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현재 비료업체들이 신제품 개발 등에 선뜻 투자에 나서기엔 어려운 환경”이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료 가격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고 농가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원료 가격 상승분을 비료가격에 고스란히 담을 수도 없다보니 예년보다 경영 실적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량비료를 개발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 ▶ 우량비료 지정, 메리트가 없다

비료업체들은 우량비료로 지정되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이 없는 만큼 적극 나서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E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해준 우량비료 제품의 판매가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적잖은 비용을 투입해 개발했지만 판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사업에 지정된 우량비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연구·개발·판매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비료업체들도 적극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F업체 관계자는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기준이 다소 완화돼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량비료로 지정받기 위해 효과와 경제성 분석 등을 시행하기 위해 적잖은 시간과 금액이 수반된다. 해당 비료가 잘 팔려야 재투자도 이어질 수 있지만 우량비료의 판로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1.5.)기사내용 인용

## □ 우량비료 육성 위한 지원정책 필요

환경과 토양보호 및 농산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우량비료 육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제도적 미흡으로 외면 받는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비료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제정세 변화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도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비용을 들여 개발해도 안정적 판로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우량비료 지정기준 완화 등으로 진입방벽을 낮췄지만 지정실적은 전무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지정요건을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이면서 비료생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1개 제품으로 완화한 것이다. 여기에다 연간 1000ha 이상 규모의 생산·공급이 가능하고, 새로 개발돼 유통·공급을 시작한지 3년 경과하지 않을 것 등의 규정을 없앴다.



하지만 업계는 원료수급 불안과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신제품 연구·개발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우량비료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우량비료로 지정되면 정부사업에서 우선 구매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량비료는 토양과 환경보호,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농자재다. 우량비료 육성을 위한 실질적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1.12.)기사내용 인용

## □ 산업별 전망

지난해 농산업계는 코로나19와 그 후유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등 대내외적인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농산업계는 올 한해 이를 타개할 돌파구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농산업계를 부문별로 전망했다.

### < 비료 >

올해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수급이 비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도 중국이 요소와 인산암모늄 등 화학비료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비료 제조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급에 따른 가격 불안정성도 커졌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비료 원료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주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돼야 본격 비료 사용이 시작되는 6월부터 농업인들이 무리 없이 비료를 구매·이용할 수 있는데 원자재 이슈로 한달이라도 생산이 중단되면 비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로 가장 빠르게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중국 외에는 계약부터 인도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원자재 수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수급 안정 지원 예산은 288억1500만 원이 반영됐다. 애초 전액 삭감 내용이 담겼던 정부안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76억8100만 원을 증액했지만 결국 절반 수준만 반영됐다.

### < 사료 >

올해 국제 곡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배합사료 가격 인하 요인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도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지난해 초 부셸당 654달러 수준으로 시작해 연말까지 계속 내려 지난해

연말에는 47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가격이 내려간 선물 옥수수가 도착하면서 배합 사료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 농협사료가 선제적으로 지난 연말 사료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민간 배합사료업체들도 가격 인하를 단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사료 가격이 인하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하락 기조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난히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료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제 곡물 가격이 이미 하락 기조인데다 올해는 브라질의 풍작과 미국 콘벨트의 기후 여건 개선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문제는 달러 환율과 해상운임인데 코로나 이후 닥친 애그플레이션같은 위기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 < 작물보호제(농약) >

지난해 소폭의 매출 성장으로 한숨 들쭉던 작물보호제 업계는 올해 한 치 앞 전망도 어려운 안갯 속에서 출발선에 섰다. 지난해 국내 작물보호제 제조사들의 전체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자칫 올해도 판매량 감소에 직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기 전망은 어렵지만 단기 전망은 농협 계통가를 중심으로 제품가격이 인상 쪽으로 기울지, 인하나 동결 쪽으로 기울지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있다. 올해 국제 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작물보호제 제품가가 인하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벌써 지난해부터 그 여파로 시판 쪽 재고가 빠르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올해 가격이 인하되거나 동결 쪽으로만 가닥이 잡혀도 연초 판매량은 전년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도 작물보호제 드론 방제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등으로 직접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늘어나는 데다 드론 방제의 편리성을 경험한 농업인이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농가가 자체적으로 드론을 구비하기엔 여전히 가격 부담이 커 방제 대행 시장의 큰 성장이 기대된다. 이러한 시장 변화를 파악하고 기존 드론 방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업체들 외에도 새로이 시장에 뛰어들었거나 준비 중인 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지난해 작물보호제 수출은 지난해 11월 3주차 기준 연간 누적 4억1000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 < 종자 >

국내 종자시장은 올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배면적이 갈수록 줄고 있어 판매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병계 종자에 대한 농업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업체 입장에서도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내병계 종자에 대한 연구개발, 생산에 보다 무게가 기울 것으로 보인다.

종자업계는 2021년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종료 이후 연구개발(R&D) 관련 정부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올해도 신품종 개발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자 개발에 워낙

많은 R&D 비용이 투입돼야 해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자비로만 이를 충당하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농수축산신문(2024.1.12.)기사내용 인용

### □ 정부, 6월 공급망 시행 앞두고 5조원 기금 조성 착수

오는 6월 '공급망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최대 5조원의 기금 조성 절차에 착수했다. 기금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국내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쓰일 예정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에 필요한 정부 보증 규모를 5조원으로 보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보증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은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의 근거 등을 담았다.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마련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 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금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는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어 5조원으로 조정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 서울파이낸스(2024.1.16.)기사내용 인용

### □ 거름, 토양 깊이 주면 암모니아 발생량 ‘뚝’…경기·강원 등 전국 9곳에 시범단지 조성

#### ○ 농진청, 관련 신기술시범사업 추진키로

전국 토양 25~30cm 깊이로 시비하면 암모니아 배출량 1만8000 t 감축 효과

대기오염물질 없애 농경지 미세먼지 완화

비료를 토양 25~30cm 깊이로 깊게 주면 암모니아 기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활용해 올해 경기·강원 등 전국 9곳에서 발작물 유해 물질 발생 저감 실천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장에 따르면 대부분 농가는 토양 표면에 비료를 뿌려 흩갈이한 후 토양과 섞는 방식으로 비료를 준다.

그러나 이 방식대로 하면 비료 질소 성분의 14%가 암모니아로 배출된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또한 작물 흡수율이 낮아 생육에도 좋지 않다.

이에 농진청은 지난해 농경지에서 암모니아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깊이거름주기 장치(심층 시비기)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해 토양 25~30cm 깊이에 표준량의 비료를 투입하면 암모니아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농진청의 분석이다.

또한 농업용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고, 쟁기 작업과 동시에 비료를 토양 속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비료 뿌리기→흙갈이→토양 썩기' 등 기존 방식과 견줘 비료를 주는 시간·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농진청은 이에 주목해 올해 전국에 유해 물질 발생 저감 실천 시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강원(2곳), 충북, 충남, 전북, 전남(2곳), 대구 등이 사업 대상지다.

※ 농민신문(2024.1.17.)기사내용 인용

### □ 동남아 요소수 수입 물류비 7.5달러 지원

#### ○ 中제외 제3국 수입기업 대상, 4월 30일까지 신청업체 접수

정부가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3국에서 산업·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21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차량용 요소의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물류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업체 접수를 올해 4월 30일까지 받는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수입선 다변화를 목적으로 중국 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산업·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으로, HS코드 '3102.10.9000'을 수입하는 기업이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기업 공동구매에 참여해 제3국 산업·차량용 요소를 구입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조달청 공공비출물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벌크선 이용을 기준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요소수를 수입하면 톤당 7.5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컨테이너선으로 수입하는 기업은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2달러를, 일본에서 수입시 톤당 3달러를 각각 지원받는다. 그 외 지역은 운영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지원금액은 관세물류협회 해상운임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톤당 운임 단가는 중국이 8.8달러, 베트남이 12.8달러인데, 벌크선을 사용하는 수입 기업일 경우 단순 계산으로 중국보다 운송료가 더 저렴해지는 효과를 얻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를 허가받은 요소수 브랜드는 롯데정밀화학의 유룩스, 케이지케미칼의 녹스-K, TKG 휴켄스의 녹스닥터 등 이달 12일 기준 909개에 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소수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루들이 뭉쳐 나중에 딱딱해진다"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물류비 부담이 큰데, 중국 쪽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조달청에서 물량 확보를 통해 재고의 양을 늘리는 제도가 갖춰졌다"며 "이번에 직접적인 보조금 제도까지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고민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 디지털타임스(2024.1.21.)기사내용 인용

## 【 국 외 】

### □ 중국 2024년 수출입 관세 조정 계획 발표

중국이 2024년 수출입 관세 조정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10개 상품에 대해 잠정 수입 세율이 시행된다. 자유무역협정 및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30개국에서 생산하는 일부 수입품에 대해 협정 세율이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 및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항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호주, 파키스탄, 모리셔스, 캄보디아 등에 세금을 인하했다.

수출 관세는 페로크롬을 포함한 10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이 중 68개 품목은 잠정수출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관세 할당율은 밀을 포함한 8개 품목에 대해 관세 할당량 관리가 계속되며 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중 요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등 화학비료 3종에 대한 할당세율은 1%로 시행된다. 할당량을 초과해 수입된 일정량의 면화에 대한 차등 준세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 페로타임즈(2023.12.22.)기사내용 인용

### □ 사우디·태국, 비료 핵심원료 칼륨 동맹 추진

#### ○ 태국 정부, 칼륨 채굴 활성화 위해 사우디 업체 협력 모색

사우디 투자자들, 내달 태국 방문...비료 산업 강화 기대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이 비료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칼륨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칼륨 생산을 통해 사우디는 비료 산업을 강화하고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비료 생산 기지로 자리 잡는다는 계획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최근 정제된 칼륨 채굴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우디 제조업체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핌파트라 위차이쿨 태국 산업부 차관은 칼륨 채굴에 관심 있는 사우디 투자자들이 다음달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핌파트라 차관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 광물 포럼에 참석해 태국 칼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브리핑 한 바 있다.

핌파트라 차관은 “사우디가 자국의 요소 광산을 보완하기 위해 태국에서 칼륨을 채굴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예상되는 칼륨 매장량과 채굴 부산물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태국은 캐나다, 벨라루스,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약 1000억(톤)의 칼륨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칼륨 매장지로는 사콘 나콘(Sakhon Nakhon), 코라트(Korat) 분지가 있다.

※ 더그루(2024.1.20.)기사내용 인용

## 4 농정 이슈

### 【 국 내 】

#### □ (통계청) 남·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인구) '22년 북한의 인구는 2,570만 명으로 남한(5,167만 명)의 절반 수준이며, 남과 북을 합한 총인구는 7,737만 명임
  - (농림업) '22년 북한의 쌀, 보리 등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451만 톤으로, 남한(433만 톤)에 비해 17만 톤 많음
  - (광업·제조업) '22년 북한 석탄 생산량은 1,6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으나, 철광석은 2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
    - ▶ '22년 북한 조강 생산량은 29만 톤으로 전년 대비 51.7% 감소하였으나, 시멘트 및 화학비료는 655만 톤, 66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9.9%, 7.7% 증가
- ※ 조강은 남한(6,585만 톤)의 1/228배(0.4%), 시멘트는 남한(5,106만 톤)의 1/8배(12.8%), 화학비료는 남한(204만 톤)의 1/3배(32.3%) 수준

## < 조강·시멘트·화학비료 생산량 >

- ▶ '22년 조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51.7% 감소한 29만 톤으로 남한의 1/228배(0.4%)
- ▶ '22년 시멘트 생산량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655만 톤으로 남한의 1/8배(12.8%)
- ▶ '22년 화학비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66만 톤으로 남한의 1/3배(32.3%)

- (조강) '22년 북한의 조강 생산량은 29만 톤으로 전년 대비 51.7% 감소하여 남한(6,585만 톤)의 1/228배(0.4%) 수준
- (시멘트) '22년 북한의 시멘트 생산량은 655만 톤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여 남한(5,106만 톤)의 1/8배(12.8%) 수준
- (화학비료) '22년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량은 66만 톤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여 남한(204만 톤)의 1/3배(32.3%) 수준

※ 통계청(2023.12.20.)보도자료

## □ (통계청)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8.1% 감소, 가을무 생산량은 0.6% 증가
  - ▶ 가을배추: ('22) 1,352,346톤 → ('23) 1,242,408톤(△109,938톤, 8.1% ↓)
    - 재배면적 : 13,152ha (전년대비 5.7% ↓), 10a당 생산량 : 9,447kg(전년대비 2.5% ↓)
  - ▶ 가을무 : ('22) 483,819톤 → ('23) 486,698톤(2,879톤, 0.6% ↑)
    - 재배면적 : 6,207ha (전년대비 2.1% ↓), 10a당 생산량 : 7,841kg(전년대비 2.7% ↑)
- 콩 생산량은 전년보다 8.9% 증가
  - ▶ 콩 : ('22) 129,925톤 → ('23)141,477톤(11,552톤, 8.9% ↑)
    - 재배면적 : 67,671ha(전년대비 5.8% ↑), 10a당 생산량 : 209kg(전년대비 2.9% ↑)
-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30.3%, 배 생산량은 26.8% 각각 감소
  - ▶ 사과 : ('22) 566,041톤 → ('23)394,428톤(△171,613톤, 30.3% ↓)
    - 재배면적 : 24,687ha(전년대비 4.2% ↓), 10a당 생산량 : 1,598kg(전년대비 27.3% ↓)
  - ▶ 배 : ('22) 251,093톤 → ('23)183,802톤(△67,291톤, 26.8% ↓)
    - 재배면적 : 8,819ha(전년대비 2.4% ↓), 10a당 생산량 : 2,084kg(전년대비 25.0% ↓)

※ 통계청(2023.12.22.)보도자료

### □ 식량안보 변동성 · 불확실성 높아져 대비책 강화해야

#### ○ 2023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의 긴밀성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당부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로”라며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정부가 앞장서야 하고 정부가 앞장서지 않으면 국민이 밀어서 앞장서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신냉전시대 식량안보의 중요성’ 발표를 통해 식량안보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져 ‘불확실성의 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장기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며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로켓처럼 상승하고 깃털처럼 내려가는 가격 하방경직성으로 수입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식량은 기후변화 등 내재된 위험요인이 더 많아 유가보다 더 큰 변동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식량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진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체제 아래에서 세계 식량공급망이 농업경쟁력을 보유한 소수 국가에 크게 의존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1년 기준 44%, 사료자급률까지 계산하면 20.9%로 쌀을 제외하곤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농업인력 세대교체가 지연되면서 농가고령화가 심화, 미래농업생산잠재력과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쌀 비축으로 식량위기를 대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은 종합대답에서 “통일되는 순간 한반도에 식량은 150만 톤 부족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세계 유일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으로 WTO의 양해를 받아 6개월분, 120만 톤의 통일미를 비축해서 매년 60만 톤씩 2년 동안 보관했다가 2년 후 쌀가공식품 기업에 저렴한 값으로 팔면 통일 후 식량위기 발생 대비와 쌀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농수축산신문(2023.12.26.)기사내용 인용



### □ 한농연중앙연합회 제21대 회장에 최홍식 수석부회장 당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제21대 회장 선거에서 기호2번 최홍식 후보(한농연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한농연은 지난 12월 27일 전북 장수군 소재 한국농업연수원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14만 농업경영인을 대표하는 제21대 선거직임원 선출을 진행했다.

최홍식 회장은 황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릉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과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을 수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삶의질향상 실무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한농연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선거공약으로는 △후계청년농업인 정착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시군연합회 활성화 △농업정책연구소 설치를 통한 농업정책의 현장성·전문성 강화 △조직혁신을 통해 중앙과 도, 시군으로 이어지는 소통 체계 마련 △한농연회관 세종시 이전을 위한 부지구입기금 조성 및 농정활동 강화 등을 내세웠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12.27.)기사내용 인용

### □ 제13대 쌀전업농중앙회장에 조희성 씨 당선

제13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에 조희성 전북도연합회장이 당선됐다.

쌀전업농은 27일 충남 천안시 소재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중앙회장, 중앙회 부회장, 감사 등 13기 임원을 선출했다.

조 신임 회장은 정견발표에서 변화와 혁신, 정체성 확립, 벼 생산자가격 20만 원 이상 확보, 쌀전업 독립회관 마련 등을 강조하며 호응을 얻었다.

조 신임 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사항을 확실하게 매듭짓는 회장이 되겠다”며 “협심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항상 노력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약속으로 당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조 신임 회장은 쌀전업농전북도연합회장과 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2020~2021년)을 역임했다.

※ 농수축산신문(2023.12.27.)기사내용 인용

###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바란다

윤석열정권의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일 취임식을 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장관은 새해 첫날부터 농촌 현장 방문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장관이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을 다니며 정책 방향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현실에 처한 농민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현실화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정치권에 충성하는 농식품부 장관보다 농민과 국민이 만족하는 장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농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수입쌀 정책 폐기 및 식량안보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식량위기 시대에 자급률을 유지하는데 급급해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 식량자급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매년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쌀 40만8,700톤에 대한 언급과 조치 없이 우리 쌀을 지킨다는 얘기는 신뢰할 수 없다.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을 수입쌀로 보고 문제 삼는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식량안보를 지키겠다는 얘기는 허구이다. 수입쌀은 기업의 값싼 식품 원료가 되고 결국 식품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쌀 감산을 위해 사실상 강제한 가루쌀은 또 다른 저가의 식품원료로 공급될 것이다. 국내산 쌀은 남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의 의도로 남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농민들에게 폭등한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을 제정해 생산비 폭등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1,800억원에서 1,000억원 등 해마다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늘려가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업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농업소득이 20년 전 소득보다 못한 948만원 시대에 어떤 부모도 아들 딸들에게 농사를 업으로 하라고 권할 수 없다. 농업소득이 최소 도시근로자 임금의 70% 이상은 돼야 온전히 농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농업정책이 아니라 국가책임 농정을 통한 식량주권을 지키고, 공공수급제 제도화는 물론 생산비가 보장되고 농사만 지어도 생활할 수 있는 공정가격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농정을 대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품는 꿈이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시대가 요구하는 농정의 전환을 책임지는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 한국농정(2024.1.7.)기사내용 인용

### □ 쌀 등급기준 강화

#### ○ ‘보통’ 등급 쌀의 혼입한도 20%→12%로

이달부터 쌀 등급기준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의 쌀의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고시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쌀라기, 분상질립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쌀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개정 전 '보통' 등급의 쌀라기 혼입한도가 특 3%, 상 7%, 보통 20%로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라기 함량을 강화시킨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돼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제한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도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 농수축산신문(2024.1.23.)기사내용 인용

### □ 정부 “쌀 가공산업 수출액, 2028년 5400억으로”

정부가 2028년까지 국내 쌀 가공산업 시장을 17조원 규모로 키우고 이 분야 수출액을 4억달러(약 5400억원)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24~2028)을 23일 발표했다. 쌀 가공산업 시장 규모는 2018년 6조3000억원에서 2022년 8조4000억원으로 33.3% 성장했고, 같은 기간 수출액은 8900만달러에서 1억8200만달러로 2배 규모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2028년 쌀 가공산업 시장 규모와 수출액을 각각 2022년의 2배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우선 최근 간편식과 건강식, K푸드 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쌀 가공산업 10대 유망품목’을 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2024.1.23.)기사내용 인용

## 【 국 외 】

### □ 올해 국제곡물가격 인상 '전망'...수출제한조치 등 상승압력 키울 것

#### ○ 엘니뇨 따른 '날씨장세'...러-우 전쟁 장기화 따른 흑해 곡물수출 '차질'

올해 국제곡물 수급여건은 주요국 농업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소폭의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주요국들이 자국의 곡물수급 안정 등을 위해 수출제한조치 등을 추진하며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제곡물 가격이 주요국 농업기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생산 호조와 높은 재고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3년 만에 하락한 바 있다. 세계 최대 곡물 생산지역인 미국 북부와 중서부의 가뭄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작황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국제곡물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농무부(USDA)는 올해 세계 곡물 생산과 수요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소폭의 공급부족 및 기말재고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부족 리스크 요인으로는 ▲엘니뇨 등에 따른 기상악화 가능성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 등 상방 리스크에 편중 등을 들었다.

국제금융센터는 “엘니뇨가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과거 유사한 강도의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의 곡물 생산은 발생 연도 또는 그 다음해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엘니뇨로 중남미에 강우량이 감소해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큰 폭으로 낮아지고, 이로 인해 통행 가능 선박에 제한이 생기는 등 운송 분야에서도 타격이 우려된다.

아울러 센터는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흑해 곡물수출 차질 가능성, 우크라이나 재배면적 감소, 중동사태 확대에 따른 비료 공급차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흑해곡물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영토 손실, 노동력 부족 등으로 작물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소맥 등의 수확량이 감소할 소지도 있다.

아울러 최근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동은 세계 비료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중동사태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비료 가격 상승세가 재개되고, 이는 재배 비용 증가→수율 하락→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 공감신문(2024.1.15.)기사내용 인용

### □ 이-하마스 확전에 ‘중동경제 붕괴’ 경고

#### ○ NYT “이집트·레바논·요르단 GDP 2.3% 손실”

##### WB, 해당 지역 식량위기 심화 우려 보고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접경지로 번지고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과 미군 충돌이 이어지면서 중동과 인근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1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오랫동안 위기에 처해있던 중동 경제가 최근 전쟁으로 인해 무너질 위험이 커졌으며 그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개발계획의 의뢰로 지난달 진행된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이집트·레바논·요르단 등이 입은 경제 손실은 이들 3개국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3%인 103억달러(약 13조7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약 23만명이 추가로 빈곤에 빠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난민 흐름, 공공 부채 급증, 수입·외화·고용을 좌우하는 무역·관광 감소 등을 거론하며 “이집트·요르단·레바논에서 인적 발전이 최소 2~3년 정도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2022년 5.6%에서 2023년 2%로 떨어지며 이미 하락세를 보여왔다. IMF 분석가들은 이집트·레바논·요르단에선 전쟁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의 식량 위기 역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11월 5일 세계은행(WB)의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하마스 충돌이 전면적 지상전으로 확대되면서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산과 운송 비용이 늘어나 식량·비료 사정이 악화할 수 있다. 가자지구(220만명)와 서안지구(35만명)를 비롯해 레바논·예멘·시리아 등에는 지난해 기준 3400만명이 극심한 식량 불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헤럴드경제(2024.1.22.)기사내용 인용

##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생산·출하 현황

(단위 : 천 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11월	2023년 11월
생 산 량	2,142	2,397	2,039	1,864	1,587
출 하 량	2,054	2,429	1,860	1,793	1,627*

\* 전년 이월분 포함

※ 협회 회원사 기준(수출 포함)

###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원자재 톤당 수입가격(달러) 및 환율

(단위 :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요 소	281	307	366	597	868	650	469	429
암모니아	273	270	437	672	957	936	580	457
D A P	314	349	485	749	948	859	638	528
염화칼륨	312	274	271	363	633	965	533	346
환 율 (매매기준율)	1,207	1,154	1,117	1,171	1,232	1,351	1,295	1,317

※ 관세청 무역통계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6 무기질비료 상식

### □ 무기질비료 원료를 생산하는 국가

질소질 비료는 산유국은 천연가스, 중국은 석탄을 원료로 하여 암모니아와 요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산질 비료는 자원보유국에서 인광석을 채굴하여 수출하거나 가공한 DAP 등을 수출하고 있고, 칼리질 비료는 자원보유국에서 염화칼륨 광석을 채굴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질소질 비료 원료 중 암모니아 주 생산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트리니다드, 캐나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타르 등 산유국이 주 생산국가이며, 요소는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캐나다, 독일 등 산유국이 주 생산국가입니다.

인산질 비료의 원료인 인광석을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 모로코, 미국, 러시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이집트, 튀니지아, 베트남 등이며, DAP 생산국가는 중국, 미국, 인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요르단, 호주 등입니다.

칼리질 비료 원료인 염화칼륨을 생산하는 국가는 캐나다, 러시아, 벨라루스, 이스라엘, 요르단, 독일 등이 있습니다.

※ 식량안보와 무기질비료 자료 인용

## 7 이달의 주요 인사

### □ 농식품부(2024.1.1일자)

#### ○ 송미령 장관

2023.12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센터장
201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4 ~ 201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201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 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개발팀 팀장

□ 농협중앙회(2024.1.1일자)

-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
  - △ 국장 손항제
  - △ 국장 김덕기
  - △ 작물보호팀장 이경호
  - △ 비료팀장 오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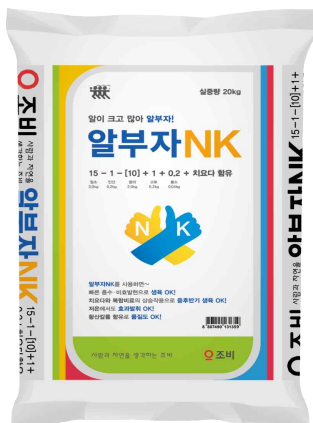
## 8 회원사 제품 소개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칼슘유황비료
- 성분량 : 칼슘 26% 유황 32%
- 특성 및 효과
  - 모든 과수 · 원예작물에 사용가능
  - 칼슘 함유로 내병성 및 저장성 증대
  - 유황 함유로 작물의 때갈, 향, 당도 향상
  - 석회질비료 대비 130배 높은 용해도로 작물흡수 용이
  - 토양입단화(떼알구조형성)로 뿌리발육 및 심토 개량 효과 탁월

□ (주)조비



- 제품명 : 알부자NK
- 성분량 : 15-1-[10]+1+0.2 (치요다 함유)
- 특성 및 효과
  - 치요다와 2중복비가 결합된 웃거름비료로서 중/후반기 생육에 효과적
  - 양분을 균형적으로 공급하여 비료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 도움
  - 황산칼리(유황) 함유로 작물의 맛, 향, 색 등의 품질 향상 도움

##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효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지 않아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효를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큰 효과

## □ (주)팜한농



- 제품명 : S-Feed (High K)
- 성분량 : 9-11-37+2+0.05+철0.05+망간0.05+아연0.015+구리0.015+몰리브덴0.001+PAA(뿌리발육 아미노산)
- 특성 및 효과
  -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원료의 효율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고품질 관주용 비료
  - 용해도가 뛰어나 관주시 노즐의 막힘이 없고 작물 흡수가 빠름
  - 기능성 PAA(뿌리발육 아미노산) 함유로 뿌리발육이 촉진되고, 양분 흡수 및 토양 보습효과가 증대
  - 풍부한 EDTA-킬레이트 미량요소 함유,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고 품질이 향상

## □ (주)풍농



- 제품명 : 명품유비료
- 성분량 : 18-9-8, 고토1, 붕소0.1, 유기물10, 완효성, 기능성NBPT 함유, 기능성비료, 특허등록, 녹색기후상 수상 제품
- 특성 및 효과
  - (주)풍농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공동 개발한 기능성비료
  - 속효성, 지효성, 완효성양분의 균형적, 안정적 공급으로 사용량 및 시비노력비 절감형 친환경비료
  - 균일하고, 단단한 입자로 기계시비 및 측조시비완성
  - 기능성 비효증진제(NBPT) 함유로 양분흡수 이용을 개선, 벼 및 원예작물 생육향상, 수량증대효과 탁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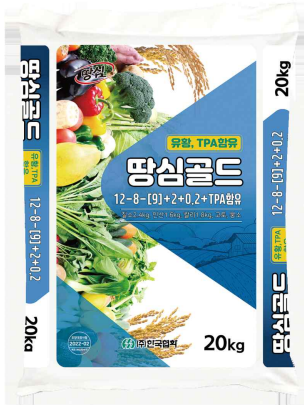




# 비료와 식량

-2024년 1월호-

##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망심골드
- 성분량 : 12-8-[9]+2+0.2(TPA, 유황, 미량, 칼슘 함유)
- 특성 및 효과
  - 유황, TPA 함유로 모든 작물에 사용 가능한 비료
  - 황산칼륨 함유로 당도 증가 및 내병성 향상
  - 기능성 물질 함유로 뿌리 발육 촉진

## □ (주)세기



- 제품명 : 원샷고추
- 성분량 : 13-7-7+2+0.2(고추전용)
- 특성 및 효과
  - 고토, 붕소, 유황, 석회, 규산 등의 미량요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매우 좋음
  - 필요한 성분이 균형 있게 공급되어 유실이 적고, 시비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고추전용 비료

## □ KG케미칼(주)



- 제품명 : 참세대22
- 성분량 : 22-7-9+1+0.2
- 특성 및 효과
  - 속효성과 지효성 원료가 적절히 조합되어 작물 초기 생육 및 후기까지 비효가 지속
  - 분진발생이 적어 측조시비 편리

※ 무기질비료 사용안내서 인용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비료와 식량

-2024년 1월호-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